

총지종 '대중화 불사' 착수

총지종이 종주 원정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교회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종단 대중화에 나선다.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12월 2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종주 원정기념관 개관법회를 병행했다. 승직자와 교도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는 종단채신 의지를 피력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총지종의 최고 권위를 지닌 효강 종령은 "대승불교의 정정이라고 자부하는 밀교의 교학과 수행원리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고 아직도 밀교에 대한 인식이 허박한 것은 종도 모두의 책임"이라며 "종조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시대에 맞는 교회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높여 나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승직자들은 창조 초기의 열화와 같은 교회정신을 되살리고, 교도들은 초발심의 정진으로 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줄곧 '종단혁신과 교회활성화'를 주문해 온 효강 종령의 이날 법어는 향후 총지종의 종단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불교(현교)와 밀교의 차이가 교회의 결집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법장원을 중심으로 불단장엄, 사원 활성화 등의 방안이 마련돼 종단내에서 공론화 과정에 놓여 있다. 총지종 전체 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18-21일 열린 추계강공에서 1차적으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뤄진 상태다.

지금까지 논의된 총지종의 혁신 방안은 불단 장엄화와 의식·의례 개편, 불구 사용, 도제양성 확대, 사원 건립 및 활성화, 종합수행타운 건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불단 장엄화의 경우, 종본산적인 종지사에 봉안된 태장계만다라의 중심부본인 증대팔염원을 보다 확대시켜 만다라내의 부처님이 크게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형상화된 불상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는 대중의 성향에 맞춰 아예 법당에 봉안하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식·의례시 사용하는 불구는 즉비 외에 요령과 종 등을 허용해 의식·의례의 분위기를 장중하게 진행하는 한편, 반배만 하도록 하고 있는 의례를 일반적인 불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례투지와 병행한다는

승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자질 향상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포교·수행·복직 등을 아우른 종합수행타운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개척지역에 대한 포교 방안으로 사원을 건립하는 한편, 장기적인 지역사원 활성화

종조기념관 개관 계기로 시대 맞는 교회방편 개발 불단 장엄·의식개편...종합수행타운 건립 등 추진



총지종은 종조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대대적인 종단혁신에 나섰다. 사진은 12월2일 종조기념관 헌관 제막식.

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불단 장엄화와 함께 의식·의례의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5일 근무제 패권에 맞춰 일요일 열리는 법회를 다른 시간대로 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2시간여가 걸리는 법회의 시간을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으로 단축시켜 법회

것이 총지종의 기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회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도제양성 확대, 지역사원의 활성화, 사원 개척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총지종은 고행화 현상이 굳어지고 인원이 늘지 않는 승단의 개혁을 위해 도제양성 확대에 나선다. 기존의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총지종 관계자는 "효강 종령님의 확고한 의지에 힘입어 종단개혁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밀그림이 이미 그려진 상태"라며 "내년 1월 중순 열리는 승단총회에서 가부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힘있는 종단' 청사진 내놔

태고종, 내년도 사업·예산 105억원 확정



태고종은 12월 2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90차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태고총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태고종이 '힘있는 종단'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승가상 구현'을 내년 지표로 확정했다.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인공)는 12월 2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90차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2006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105억4천여만원의 예산안, 태고총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태고종은 내년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종단발전기반 구축사업, 인재양성과 종도 의식개선을 위한 전인교육사업, 사찰기능 확대사업, 사회복지사업, 불교부구 청산사업 등의 5대 중·장기사업을 추진, 이를 바탕으로 16개 중점사업을 벌여 나간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종단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 불교전통문화진흥재단 건립기금 조성사업 △지방교구 신도회와 중앙의 전국신도회 재결성 △재정확보를 위한 종단수익사업을 벌여 나가

로 했다. 이와 함께 종보인 <한국불교>를 현재 주간 12면 발행에서 주간 16면으로 증보발행하고 불교위성TV(BS)의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인교육사업으로는 통합적으로 시행했던 승려연수교육을 중무직원행정연수, 승려 선수행 연수, 한문 및 외국어 연수 등 기능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권속·신도회·청소년·외국인 수련회 개최 등을 개최한다.

사찰기능 확대 방안으로는 총무원-교구총무원-사찰을 연결하는 행정시스템 전산화 완료, '인간 대각성운동' 등이 제시됐다.

또 태고종은 종단 산하 중무기관이나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종단차원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벌여나가는 한편 자원봉사단 결성, 인권·환경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임명된 총무원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일부 재직자들이 태고총림법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선 것. 관음전 불상 위조설과 전산대회 개최 시도 등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에 태고종 총무원은 재직자들의 불만을 줄이면서 선암사를 종본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결국 종법의 제·개정, 폐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총회는 폐기 대신 개정을 택함으로써 현 총무원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조계종측의 소유권 행사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또한 태고종도들의 정신적 귀의처라는 상징성을 감안한 결과다.

박봉영 기자

조불련, 남한 불교계에 베이징 만남 제안

조불련, 남한 불교계에 베이징 만남 제안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서기장 정서화)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주요 종단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불국사 등에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조불련은 11월 30일 종단협 등에 보낸 전문을 통해 "조불련 부위원장에 심상진 서기장이 내정됐으며 서기장으로는 정서화 스님이 임명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히고 "협력과 연대의 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중국 베이징에서 상호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과 당면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불련은 12월 14일 천태종과의 접촉을 시작으로 15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15일, 16일 불국사, 17일 진각종, 평북협 등과 차례로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불련측과의 접촉은 정서화 서기장 체제 이후 첫 만남으로 향후 남북불교 교류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동안가 결제 12월14일부터 한달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2월 14일 종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25여 사찰에서 제88회 갑신년 동안가 결제에 든다.

이번 안거에는 전국 사찰에서 천태종 스님과 재가불자 5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자는 1월13일까지 방부를 들인 사찰에서 용맹정진한다. 스님들은 2월까지 60일간의 안거에 든다.

구인사는 12월 14일 오후 10시 설법보전 5층 법당에서 결제법회를 봉행한다. (043)423-7100-8

박봉영 기자

수행지침 전각의범 출간

전각종의 각종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인 <전각의범>이 출간됐다.

<전각의범>은 전각종에서 제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각종 불사 및 행사,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 상례, 제례 등의 의식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 의범의 중요 및 대요를 비롯해 심공의례, 수계관정의례, 제반의례, 의제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총화종 '총찰' 건립 나선다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이 종도들의 정신적인 귀의처가 될 대본산 건립에 나선다.

총화종 중앙총회(의장 화담)는 11월 30일 종본산 남양주 수진사내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5차 중앙총회를 열고 총찰 건립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건립기금 90여억원은 종도

들의 성금 등으로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찰건립기금을 포함해 96억 3천 3백여만원의 2005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화종은 내년 재단법인 설립,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중앙연수교육 실시, 해외 성지순례 등을 추진한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총화종은 내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총찰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 재단법인 설립 등 어느 해보다 중요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라며 "종단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와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원력으로 모든 종도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법륜종 창종 16돌 법회

법륜종(총무원장 창법)은 창종 16주년을 맞아 11월 30일 논산 총무원 대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무원장 창법 스님은 법회에서 "종단 발전과 중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이 화합단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금강경의 주장자 84,000장경의 엔솔로지

빈손도 내려놔라

도서출판 여래. 저자 둔세승. A4size 100% 칼라양장판 867쪽

불교사상 처음 금강경을 의지해서 그동안 배우고 탁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둔세승(세간을 등진 출가자)이라는 필명으로 밝힌 4차원적인 삶의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나는 알고있다는 현대인들에게 1,000여편(세계불교문화유산)의 컬러 이미지와 함께 깨달음으로 이끄는 밀레니엄 화두

정가 / 상하권 100,000원

연락처 : 02)515-8289 / 053)744-9009

www.buddhapia.cc

보면 보인다!?

금강선연 애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예게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지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곱씹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

"그렇다면 왜 벗어내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한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경지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가 훗날 제4대조가 된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卍

사람의 효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행복이 기록해진다. 우리인간은 어디에도 풀 줄 곳 없는 비탄이다. 흥연이 이 세상에서 나의 부질없는 마음에 얽매어, 한바탕 소름이 돋는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로 무엇을 찾아 오늘도 길을 나서는가? 바람 같은 인생살이 마음에 한량과 분노를 실어치고 웃고 힘은 갈음없이 허기에는 힘으로 아미호 남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용서하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나그림듯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자. 그리고 화해하자. 화해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용서는 사랑이며, 사랑은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묘약이다. 사람의 효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행복이 기록해진다.

해광(海光)스님 불교비전의승서 '불기바라', / 실용역학서 '운명비경', / **열린출판사** 서울 중구 홍무로 33-4 4층 404호 / 02-2275-3892